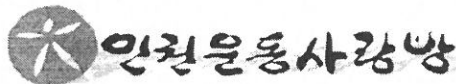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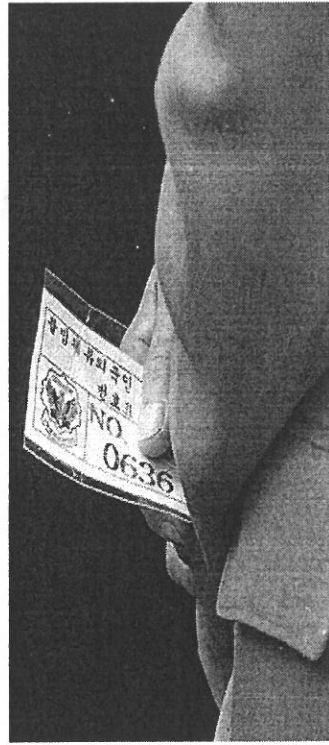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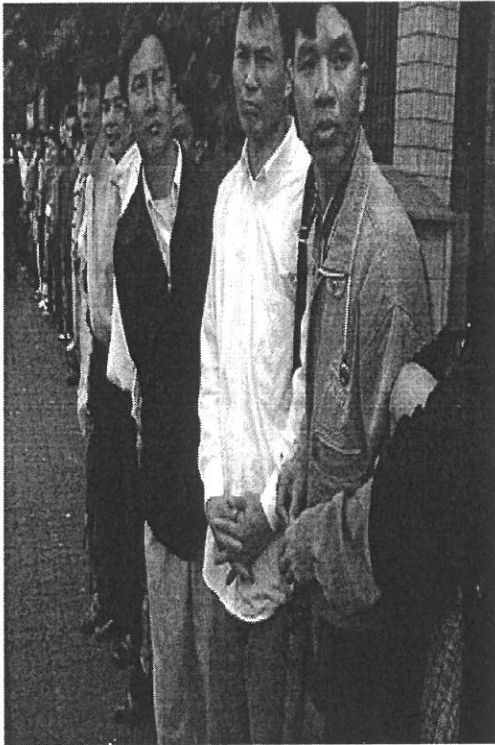


사랑사랑

제89호 (2002/5/22)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단속, 추방...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인간다운 삶과 노동'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110-522)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8-29, 4층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http://www.sarangbang.or.kr>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rights@chollian.net

나의 인권이야기

"쇼즘 읽는 책, 쇼즘 생각하는 것들, 단 3분을 넘지 못하는..."

이종헌 (꿈꾸는 사람들 회원)

요즘 관심은 1분을 넘지 못하고 생각은 3분을 넘지 못한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터라 아침에 신문을 거의 빼놓지 않고 보는 편인데 최근 들어 뭐가 그리 바쁜지 기사 하나를 읽다가 다시 옆의 기사를 읽다가 또 옆의 기사를 읽다가 원래의 기사로 돌아와서 다시 읽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자주 하게 된다. 기사 하나에도 진득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옆의 팀장님도 그러하다는걸 보면 비단 나 하나 만의 문제는 아닌듯 싶다. 그래서 이번 에세이는 요즘 궁금하고 그냥 생각나는 것들 또 읽는 책 이런 것에 대해 주절주절 얘기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한다.

첫째, 배부른 우파들의 불만

2001년 겨울 사회비평 특집 제목이다. 이 제목 상당한 카타르시스를 주지 않는가. 그간 언론사 세무조사를 두고 극우세력들이 어찌나 자해공갈단 짓을 해대는지 심기가 아주 불편하던 차에 얼마간의 후련함을 주는 그런 기획이었다. 비단 언론사 세무조사 뿐이라 강정구 교수 방명록 파문과 이에 이은 임동원 장관 탄핵안 가결, 안티조선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양갈지게 쏘아붙이는 홍위병이라는 딱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전교조는 사회주의 세력' 발언... 들추어 내려니 한도 끝도 없다. 50년 유지하던 정권 그깟 5년 빼앗겼다고 나라 망한듯 자해 공갈하는 이 극우들의 어이 없음이란...

이문열이 책 반환운동을 주도하던 화덕현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 전라도 사람이지?", "너 운동권이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덕현씨는 부산사람인데다 조그만 사진관을 경영하는 소시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문열인가! 문인의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산산히 부서지는게 안타까웠던 것은 박완서씨 였고 어떠한 상처도 받지않은 이문열 재차 이렇게 물었다 "너네 부모님이 전라도 사람이지?" 이 뒤로는 나의 추측이지만 화덕현씨는 어이없는 나머지 아무말도 못했을테고 이문열은 "그럼 그렇지 전라도 빨갱이 새끼들..." 아마 이런 확신을 열배 더 강화했을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친일파 - 반공주의자 - 군사독재에 기생해온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에 덤비는 상대에게 대응하는 방식이다. 감히 전라도 것들이, 개혁운운 하는 것들이 정권을 잡은 데 대한 참을 수 없는 집단적인 불쾌함. 나는 그들의 언어의 행간에서 평범한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수지감을 기어이 간첩으로 만들고 만 그들의 집요함과 광기가 읽혀진다. 이 집요함과 광기로 입만 열면 부르대는 "온 국민의 열

망인 정권교체를 이를 정당 한나라당" 이 정권교체를 이뤄내고야 말 것 같아서 몸서리쳐진다.

둘째, 레드 콤플렉스와 노무현

진중권 왈, 레드콤플렉스는 빨갱이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백색테러에 대한 공포라고 한다. 언제라도 빨갱이로 몰려 죽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더불어 백색테러의 대상으로 지목받지 않기위해 가해자에 편에 있다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구조에 기인한다고 한다. 사실 그러고 보면 맞는 말이다. 평상시에 계속 '저새끼 빨갱이', '저새끼 빨갱이' 이런 정신나간짓을 미리미리 해놔야지 만에 하나 빨갱이로 지목받으면 내가 왜 빨갱이가 아닌지 밝혀야 되는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을 두고 술하게 벌어지는 이른바 "검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회창은 사상검증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고? 그는 이미 "이 정권의 좌파적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라고 공격함으로 같은 편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이런 고백을 미리미리 시끄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증은 이미 빨갱이라는 확신을 확대재생산하는 절차에 다름아니다. 그가 "난 사실 빨갱이다.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는 장인이 사주했다." 이렇게 밝히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사상검증은 끝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조중동의 집중 포화를 맞고도 노무현이 민주당 후보가 됐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내의 예비선거인데다 유래 없이 30대가 주축으로 나선 선거라는 점도 있지만 조선 및 특히 동아일보의 악다구니같은 자해공갈단 짓거리에도 경선기간 중 노무현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것은 희망적이다. (참고로 동아일보는 자해공갈을 업그레이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지고 자해공갈을 한다. "노무현이 당선되면 메이지 신문을 국유화할 것이다" 정말 미칠지경이다. 이정도면 예언자적 자해공갈이라고 봐야되는건가.) 걸리면 다죽는다는 조중동에 대한 두려움이 레드콤플렉스의 큰축이었다면 날로 떨어져만가는 그들 신문의 영향력에 비례하여 레드콤플렉스의 영향력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희망적인 기대를 해본다.

셋째, 담론, 세론, 습속

난 왜 경상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회창을 찍을까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떻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라도 정권과 끊임없이 연관지으면서 증오할 수 있을까. 이게 웬 정치의 과잉인가 궁금했었는데 약간의 단서는 잡을 수 있을것 같다. 이후로는 진중권의 엑스리브리스 '폭력과 상스러움'의 정의와 힘 편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한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란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지배는 물리력을 통한 강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담론을 통한 설득에 기반하여 유지되는 법이다. 오늘날 신문, 잡지, 방송을 통해 의사소통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이 권력유지의 방식으로 선호되고 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우리의 언어게임의 바탕으로서 '세론(Gerede)'에 대해서 언급한다. 모든 수학적 명제가 결국은 정리의 공리의 수준으로 내려가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

하듯이, 세간에 떠도는 세론은 그보다 추상의 수준이 높은 담론이 자기 정당성을 주장할 때 의뢰하는 준거가 된다. 이데올로기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이 대중들 사이에서 오가는 세론 덕분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보수성의 가장 깊은 바탕을 이루는 것은 바로 대중들 사이에서 떠도는 얘기를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가령 정치적 독재, 가부장 독재, 성 차별, 지역 차별, 외국인 차별을 생각해보라. 그 누구도 '담론'의 영역에서 이를 노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세론 속에, 즉 대중의 일상적 담화속에 분명히 존재한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습속(habitus)'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사실 '세론'이란 단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술자리에서 혹은 택시안에서 오가는 '빈 소리'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 특히 타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 속에서 물질적 형태로 존재한다. 보수성은 머리속에만 기입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습속이라는 형태로 인간들의 몸 전체에 기입되는 것이다. 보수성의 집요함은 논리의 튼튼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습속이라는 몸의 보수성, 즉 관성의 힘에서 비롯된다. 가령 우리 사회의 습속을 이루는 군사문화의 허구를 논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습속을 깨는 것은 한갓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다. 먼저 몸속에 기입된 습속이 있다. 그것은 입을 통해 '세론'의 형태로 제 정체를 드러낸다. 그러면 미디어는 '민심'이니 '여론'이니 운운하며 그 목소리를 여과없이 증폭시킨다. 또 대중들에게 회자됨으로 습속으로 굳어진다. 오늘날의 이념 비판은 대중들의 입에 회자되는 '세론'과 그의 몸에 의해 실천되는 '습속'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론과 습속이야말로 정말로 현실적인 힘을 가진 구체적인 이데올로기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작업장에서 그를 때리지 않으면 끝나는게 아니라 "웬지 냄새나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나와 우리옆의 사람들의 말 속에 있다는 말인게야 이렇게 이해하면서 꿈사가 하고 있는 에세이가 이 세론과 습속과의 싸움이라고 새삼 의미부여하고 싶다. 또한 월장게시판에서 몸소 극도로 보수적이다 못해 공격적인 예비역들의 세론과 맞서 싸웠던 진중권에게 한 없는 경탄을 보내는 바이다.

넷째, vs. 일상적 파시즘론

99년 가을호 당대비평에 '우리안의 파시즘'이란 기획이 실렸을때 나쁜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 성찰적 메시지에 귀 기울였을것이다. 군사주의, 국가주의의 잔재가 삶의 일상적인 영역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것이었음을 그리고 이 '습속'과의 지난한 싸움을 벌이자는데 많은 이들이 공감했을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텍스트는 '사용'속에서 의미를 획득" 한다면가 조선일보의 다음과 같이 이 텍스트를 교묘하게 배치한다.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큰절을 하고 5.18전야에는 여자를 끼고 공짜 술을 퍼마시고... 우리는 모두 파시즘의 공범인 셈이다. 이 책은 일상 생활의 미세한 국면까지 파고들고 있는 일상적 파시즘을 반공규율, 가부장적 혈통주의, 건축과 교회와 같은 일상문화에 이르기까지 정치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일상적 파시즘의 비판을 비판세력 자체에까지 확대하는 촌철살인의 미덕이다." 정말 어이가 없지 않은가 그래 쓰파 내안에 파시즘적인 습속이 기입되어 있다고 해도 조선일보따위가 나를 파시즘의 공범으로 몰아

가다니 더럽고 아니꼬운 짓이다.

99년에 당대비평을 읽은 후 도통 계간지에는 손을 못대다가 2001년에 우연히 접한 강준만과 임지현(당대비평 편집위원이자, 우리안의 파시즘 특집의 기획자)의 논쟁을 접하고 사실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임지현이 누차 주장했거니와 나도 대학때 사용한적이 있는 "현재의 이념적 지형은 80년대처럼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 없다. 현실은 중층적이고 전선은 대단히 불연속적이다."라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나 현실에서의 '사용'까지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실은 중층적인데다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지배세력에 조선일보를 위시한 의사소통구조 및 현실의 왜곡까지... 명확한 의제가 없는 임지현 식의 일상적 파시즘론은 박정희교신도들도 파시스트, 운동권도 일상적 파시스트, 우리모두 거기서 거기라는 얼토당토않은 현실적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섯째, 어떤 의제로 싸워야할까

요즘 고민하는 것중에 사소하지만 중요한것 하나

최근에 나는 직장을 옮겨서 사람들과 서로에 대해 그다지 아는 편이 못된다. 게다가 담배도 끊은데다 술까지 못마시게 되어서 상당히 모범생적인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그런데다가 내가 직장에서 지키려고 하는 몇가지 것들 [저는 권의주의적인 상하관계를 지양합니다. 저는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매춘에 반대합니다. 단란주점같은데는 가지 않습니다.]과 결합하면 갑자기 내가 무슨 도덕주의자로 혹은 보수주의자로 비치지 않을까 슬그머니 걱정이된다. 세론과 습속의 영역에 가져갈 의제를 어떻게 가다듬으면 좋을까 하는게 내 생각이다. 도덕주의 냄새가 나면 힘을 쓸수가 없다.

두번째는 영 논쟁할 기회가 없는 민주노동당과 노무현의 문제

많은이들이 그랬겠지만 나도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와 노무현의 활약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지지했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다가오니 나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의 평범한 당원들 내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것으로 안다. 어느 술자리에서는 노무현 찍으면 당에서 제명해야된다는 가시돋친 말도 오고갔다. 나는 물론 민주노동당이 현실정치세력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유의미한 득표를 반드시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할수 있는 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DJ정부의 경험을 통해 한국사회가 청산해야될 이슈와 개혁에 대해 기득권세력이 어떻게 집요하게 반대하는지 또 언론개혁과 같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일별해낼 계기를 가지게 됐다고 본다. 특히 언론개혁 및 조선일보와의 싸움을 의제화 하여 선거기간중에 공동 이슈화 하는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다. 가능하면 개혁세력의 포션을 높이는것 그래서 김종필같은 무리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는 보수' 이런소리를 절대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혁세력의 외연을 넓히는 가운데 주도권을 민주노동당이 가졌으면 한다.

요즘엔 도통 토론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생각도 정리가 안되고 자기만의 생각에 그치게 된다. 그러다보니 글도 주절주절 늘어놓게되고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는 글이 되어버렸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인권으로 그리는 세상 -

인권운동가 Dan Jones 그림 전시회"

- 때 · 곳: 2002년 5월 30일-6월 3일,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지하 일주아트하우스 아트큐브
2002년 6월 16일-22일 혜화역 전시관
- 주 최: 인권운동사랑방
- 주요 전시작품: 아래 소개된 작품들을 포함하여 50여점

노동조합의 원조 (Union Aid)

영국의 최대 노조인 UNISON 본부에 있는 대형 벽화. 배경과 좌측에 그려진 생산성과 정의의 이미지들이 오른쪽에 그려진 착취, 전쟁, 기아로부터의 위협과 확연하게 대조된다. 이 그림은 UNISON 조합원들이 후원하는 영국의 자선단체 "War on Want"와 이 단체가 추진하는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여성 노동자를 위한 자립 프로젝트를 잘 설명하고 있다.

"노동자여, 단결하면 결코 패하지 않으리!" (The workers, united, will never be defeated !)

1978년 영국 노동당의 노동절 포스터. 빨간 깃발에는 칠레 노동조합의 슬로건이 스페인어, 벵갈어, 영어로 쓰여있고, 그 밑에는 어깨를 건 각국의 노동자들이 있다. "민중의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 찢다"라는 노동당 당가의 가사가 있다.

이 포스터는 영국의 광산노동자와 부두노동자들이 정의와 1일 8시간 노동제를 위한 역사적인 투쟁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빵, 일자리, 정의"라는 글자가 한 칠레 노동자의 복장에; 노동자 성 요셉; 자유와 평화를 위한 투쟁들; 오월 첫째날에 대한 영국의 전통일 메이 풀, 오월의 꽃, 메이 퀸 등이 그려져 있다. 수염이 난 인물이 본인이며, 그 옆에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당시 영국 운송노동조합 위원장이던 내 친구 브라이언 니콜슨이다. 이 포스터는 칠레의 많은 정치범들에게 연하장으로 보내지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깃발에 표기된 스페인어에 철자가 하나 잘못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실제로 이 포스터를 받았을 피노체트에 의해 구속된 정치범들이 무척 속이 상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는, 확실히 자유를 얻을 것이다!" (We will, we will, we will be free!)

기계 노동조합의 톨푸들 순교자 15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실크스크린. 톨푸들 순교자들은 1834년 농업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하여 호주로 이주해간 도어셋 출신의 6명의 농업 노동자들이다. 순교자 중 한 사람인 조지 러브리스의 말이 그림 중앙에 있으며, 가장자리를 빙

둘러서는 남미와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의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들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림의 가장 밑에는 흑백차별주의에 항거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년간 복역한 영국 노동자 데이브 킷슨이 있다. 큰 탁상 덮개 크기의 이 그림은 데이브 킷슨이 석방되었을 때 노동조합이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달하였다.

블레어 피치 (Blair Peach)

이 그림은 1979년 런던 서부의 아시아 인 지역인 사우스 홀에서 파시즘에 항거하는 시위 도중 경찰에 의해 살해된 학교 선생님이자 노동조합 운동가였던 나의 친구 블레어 피치를 기리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내 친구의 쓰러진 육신을 경찰이 옆에서 둘러싼 장례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치명상을 입힌 머리 상처로부터 피가 붉은 깃발로 흘러내리고 있다. 그리고 인도 여인들이 그가 묻히는 곳에 꽃을 바친다.

알타브 알리 (Altab Ali)

우리 집에서 가까이 살았던 젊은 방글라데시 섬유 노동자 알타브 알리. 그는 1978년 지방선거가 있던 날 밤, 인종차별자의 공격으로 숨을 거두었다. 이 그림은 그의 살해에 항거하는 방글라데시 인들이 국회 의사당으로 행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케이블 스트리트 기념식 (Cable Street anniversary)

내가 살고 있는 케이블 스트리트는 1936년 케이블 전투로 유명하다. 1936년 영국 파시스트 우두머리 오스월드 모슬리 경과 추종자들이 유대인 지역을 관통하여 행진하려는 것을 50만 명의 민중들이 막았다. 이 역사적인 날의 50주년 기념 축제를 그린 이 그림은 지역 노동조합, 다인종 공동체 단체, 또 정면에는 1936년 스페인 내전에 참가했던 국제군 참전 용사들 등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준다. 내 아내 드니스는 이 그림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유대인 사회주의자 깃발 앞에 나와 함께 행진하고 있고, 훗날 추가한 것인데 오른쪽 밑에 이 지역 시장으로 등장한다.

그렌펠 학교 사건 (Incident at Grenfell School)

반인종주의 교사 회의를 위한 포스터로 제작된 이 그림에는 영국의 극우파 민족전선이 깃발과 증오심을 일으키며 한 학교를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는 내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지역의 학습 장애 어린이를 가르치는 학교인 그렌펠을 선택했다. 인종주의자들은 벽에 낙서를 하고 있고, 몇몇 어린이들은 거위걸음 같은 나치의 행진을 흉내내고, 다른 어린이들은 인종주의자들의 유인물로 찢고, 또 몇몇은 공포에 질려있다. 내가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던 이 장면이 실제로 몇 달 후 이 학교 바깥에서 벌어졌다.

마르크스 기념 도서관 (Marx Memorial Library)

런던 북부 클러크웰의 한 때는 사회 민주주의 연합의 사무실로 사용되기도 했던 역사적인 건물에 자리하고 있는 마르크스 기념 도서관은 사회주의 도서관 중 하나이다. 이 건물은 칼 마르크스, 크로포트킨, 윌리엄 모리스 등이 조직하고, 일하고, 강의를 했던 곳이다.

1900년대 초반에는 망명중이던 레닌이 바로 이 사무실에서 '이스크라'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혁명 지원, 노예제 반대, 투표권 쟁취, 노동조합의 권리, 여성권, 아일랜드의 자유와 국제연대주의를 위한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열렸던 클러큰웰 그린의 수세기 의 운동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마르크스를 보여주고 있다.

작가 소개

단 존스 약력(b1세)

학교를 마친 후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공동체 프로그램 자원활동가로 일한 후 단 존스는 영국 브라이튼에서 교사 연수를 받고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1967년 런던 동부의 다인종 노동자 지역인 도크 지역의 한 학교로 옮겼다. 그 후 런던 북부와 동부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가르쳤다. 학생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는 노동자 교육과 성인 교육 및 여성 수감자를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1970년부터 런던의 타워 햄릿츠 지역에서 청소년 및 공동체 교육 전문가로 17년 동안 일하였다. 특히 위험에 처하거나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들을 위한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관여하였고 새로운 이민자도 그의 관심사였다. 그는 또 노동조합의 자원활동가였으며, 그가 속한 노동조합 지부장을 역임하였고, 지역노조의 사무국장도 수년동안 역임하였다. 지역 법률센터를 건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여러 가지 인권운동과 인종차별 반대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1987년 이후 단 존스는 영국 지부의 캠페인 및 교육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주로 영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인권 훈련 및 개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쓴다. 지난 30년간 그는 수많은 책을 직접 쓰기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야기의 삽화도 그렸으며 수많은 팸플렛도 제작했다. 이러한 책들 가운데는 동화, 시, 어린이 놀이책이 있다. 그는 런던 동부의 고용 및 노동문제를 다루는 많은 팸플렛을 제작했다. 런던동부의 섬유산업의 노동조건, 지역의 인권역사 및 이민의 역사, 무단결석 및 비행청소년 문제, 런던과 파리의 인종차별, 방글라데시의 영국 차농장의 실태 등 그가 다루었던 분야는 광범위하다. 그는 에서 인권교육자료용 인권관련 자료, 책자, 포스터 등 많은 것을 제작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동조합, 지역공동체 축제, 종교단체, 시위와 인권활동을 위한 포스터, 벽그림, 걸개그림을 제작하고 있다. 그는 또 로얄 아카데미와 화이트채플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그가 그린 큰 그림 중 일부는 노동조합 본부와 지역 주민 센터에 걸려있다. 그는 또 가두행진과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커다란 인형과 조형물을 만들기도 한다.

단 존스는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및 중동의 여러곳을 방문했다. 외국을 방문할 때면 항상 스케치 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가 목격하는 것을 스케치한다.

작가의 글

" 한국과 나의 인연"

국제앰네스티 회원이었던 나는 1970년대부터 서준식, 서승 형제, 김지하, 김대중 등 많은 양심수들을 위한 탄원편지를 한국 당국에 썼었다. 하지만, 내가 한국을 실제로 방문한 것은 국제앰네스티에서 직업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던 1987년의 뜨거운 여름이었다. 당시 나는 교회에서 일하는 인권운동가들을 만났고, 한국지부도 알게되었으며, 민주화를 위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또 매캐한 취루탄 가스 냄새에도 익숙해졌다. 1989년 나는 조효제와 전태일 열사 가족을 포함한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을 만났다. 다시 1990년에 나는 당시 양심수로 복역중이던 화가 홍성담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영국의 글라스고우에서 내가 조직하여 개최했던 인권전시회에서 전시했던 홍성담 화백의 귀중하고 값진 작품들을 그 때 광주에서 모을 수가 있었다. 이 전시회를 보고 어린이와 젊은이를 포함한 수많은 글라스고우 시민들이 그를 위한 탄원서를 한국 당국에 보냈다.

1990년 장기수 서승씨가 드디어 석방되어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연설을 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하였다. 그 때 서승씨는 우리 집에 머물렀는데 나는 이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991년 나는 그를 일본에 있는 그의 형제들과 다시 만났고, 그리고 나서 한국지부의 오완호와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하였다. 이 때 민가협을 비롯한 여러 운동 단체를 방문하였으며, 인권 교육을 돕기도 하였으며, 작가 홍희담과 같은 많은 인권운동가들도 만났다. 이러한 나와 한국의 인연은 장기수 출신 서준식과 장기수 김성만의 어머니 등 많은 한국의 양심수들이 영국에 강연을 하러 오며 따라 더욱 깊어졌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류은숙과 같이 한국의 운동가들이 에 일을 하러 오기 시작했고 우리 집에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1998년 화가 홍성담도 영국에 있는 우리를 방문할 수가 있게 되었다.

나는 한국을 몇차례 더 방문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서울에서 개최된 유엔 민간단체 회의에 참석한 것과 2000년 5월 광주 항쟁 20주년 기념식에 초대받은 것이 있으며 광주 항쟁 20주년 기념식은 특히 깊은 감동을 주었다.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우리 안의 그들,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을 찾아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지난 한달 간 인권하루소식을 만들기 위한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4월 말부터 5월 초 까지 사나흘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이 이사를 하느라 어수선했고, 또 전임기자 둘 중 한 명은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느라 나흘 간 사랑방을 비워야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인권하루소식은 계속 나왔다. 사랑방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일정이 아닌 한, '하루'도 쉬지 않고 인권하루소식이 나와야 한다는 철칙이 2천90여호를 내는 동안 계속돼 왔는데 이어나 예비군훈련 쯤으로 깨질소냐. 물론 인권하루소식이 함께 어깨 걸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인권하루소식은 이주노동자들에 가장 주목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달 19일, 이를 후로 예정된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 쟁취 결의대회'에 대해 알아보던 중 정부가 이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집중단속할 거란 사실을 포착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이 '합법화를 보장하라'며 집회에 참여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외국인은 정부의 정책을 바꾸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등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주권국가로서 외부의 입김에 휘둘러선 안 된다는 거라면 그건 백번 당연한 말.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지위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뿐, 산업의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반대 표현조차 할 수 없다니... 미국과 같은 강국이나 IMF, 세계은행 등의 힘있는 기관의 한 마디는 우리 국민들의 천 마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그야말로 내국인과 외국인인을 가르는 차별이자, 외국인 내에서도 부와 권력의 소유 여부에 따른 차별이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4월 21일 일요일 이주노동자들은 기자회견으로 대규모 집회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거리에서 맘껏 원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단 생각에 피켓을 만들고 핸드마이크를 빌리며 들떠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필요할 때 사용하고 버리는 나무젓가락처럼 대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이렇게 막대하면 더 큰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 4월 28일 이주노동자들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했고, 이들은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진신고' 및 단속추방 정책에 대한 '더 큰 저항'을 만들어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은 16일 영등포 문래동의 자진신고 접수처도 찾아갔다. 자진신고 접수처 앞에는 이주노동자들의 행렬이 길고도 길었다. 26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다 어

다 있었나 싶었더니, 그들은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며 도시 외곽의 주변부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자진신고 접수처 앞의 그들은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이주노동자들과는 달리, '자진신고'를 선택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정부가 제시한 요건처럼 1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인권하루소식이 인터뷰한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일단 자진신고를 하긴 했지만, 한국에서 자유로이 일하며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 1년 뒤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의 대대적 단속에 따른 인권침해들이 인권하루소식 지면을 채우게 되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주노동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란 확신이 보다 강하게 들었다.

지금도 명동성당에서의 이주노동자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달 정부의 협박으로 무산됐던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2차 결의대회'를 19일 적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의 참여 속에 결국 성사시키기도 했다. 이들의 움직임을 쫓아가며 인권하루소식은 많이 놀라고 감동받고 있다. 그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외국인이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는 한국인들 내부의 편견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이자 똑같은 인간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이미 분명히 알고 있거나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투쟁을 노동착취와 차별로 고통받는 모든 억압받는 이들의 투쟁 속에 위치지우려 노력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이 명동성당의 농성과 그들을 지지하는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의 운동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꿈파카툰

이 동수

*꿈파란 '꿈꿈히 따지며 살라'의 준말어에영 ^^...



사/업/보/고

(2002년 4월 넷째 주 - 5월 셋째 주)

인권교육실

1. 아동권 보고서

유엔에 제출할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현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단체들의 감수를 받고 있고, 영역을 마치는 대로 유엔에 제출하게 됩니다.

2. 단 존스 그림 전시회

'인권으로 그리는 세상 - 인권운동가 단 존스 그림 전시회 -'가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지하 아트큐브에서, 6월16일부터 22일까지 혜화전철역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5월 25일(토) 오후 3시에는 사랑방 회의실에서 인권교육 워크숍이, 5월 31일(금) 오후 4시에는 서울교대에서 어린이와 함께 하는 그림 워크숍이 열립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그림 워크숍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손을 잡고 오십시오. 전시회 개막행사는 5월 30일(목) 오후 5시에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어린이 인권캠프 확정

제4회 어린이 인권캠프가 8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양평의 청운인성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인원을 약간 늘려 40명의 어린이들(초등학교 4-6년)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4. 전교조 학생인권실태 조사사업

전교조 서울지부 인권교육국에서 준비중인 학생인권실태 조사사업에 참여하여,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생인권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교사들의 실태조사가 끝나면 '분석작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5. 경희대 '한국사회와 인권' 2학기에도 계속

경희대에서 강의중인 교양과목 '한국사회와 인권'을 2학기에도 계속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정보자료실

1. 인권정보자료실 홈페이지 단장 마무리
5월 마지막 주 개통을 목표로 인권정보자료실 홈페이지의 개편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꿈사 김민정 씨가 홈페이지의 기술 작업을, 후원회원 이진아 씨가 디자인을 맡아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호에 소개 드린 메뉴 -△국제 인권조약 및 이행감시기구 △유엔인권기구 △유엔전문기구 △주요 인권회의 해설과 인권기구의 주소록 소개-외에도 △청원절차 안내 △유엔 인권용어 인덱스(index) △인권정보사이트 꾸러미가 추가됩니다.

2. 이사 후 서가정리

이사 후 자료실의 가장 큰 변화는 4층 사무실 약 절반 가량을 자료실 서가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좁은 공간에 많은 자료를 넣다보니 자료에 손상도 있었고, 비디오·시디(CD) 등 시청각 자료들은 정리할 공간이 없어서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신착자료의 수용능력에 한계를 절감하고 있던 중 자료 공간이 확보되어 무

척 다행입니다.

인권정보자료실 서가는 크게 △자료 및 단행본 △참고문헌 △비디오 및 시디 등 시청각 자료 △정기간행물 △판매용 자료로 분류되고 국문/영문/일문 자료로 나뉘어 정리됩니다. 인권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료실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옥인권팀

1. 교정의료 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지난달 사람사랑을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4월 24일 감옥의 인권팀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종로성당 대강당에서 “교정시설 내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올해초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 의료피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는데요, 심포지엄 행사에는 인권단체활동가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 법무부 직원, 연구원과 교수, 변호사와 유가족 등 각계 각층의 교정시설과 관련된 사람들 50여명이 참석, “교정분야 책임자들과 전문가들이 다 모였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심포지엄 사회는 건국대 법대 이승호 교수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심포지엄은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의 문제점과 관련해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의 인권팀의 유해정 상임활동가의 발제를 시작으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의사가 ‘외국의 교정시설 의료실태’를 그리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가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의 비교를 통한 수용자 의료권 확보를 정리해주었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보장을 위한 대안이란 주제하에 법무부에 요청됐었는데요, 법무부측에서 불참을 통보해와 아쉽게도 발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 마이크는 참석자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의료는 단순한 치료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이에 걸맞는 운동과 식사 등이 수용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이다. 정부가 수용자들을 범죄자로만 보고 죄진만큼 벌을 줘야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건강이 뭐 대수겠느냐! 미진한 법률 개정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의료예산책정과 필요장비를 손색없이 비치해야 한다”는데 많은 동감을 피력했습니다.

토론이 무르익을 때쯤 불참한 줄 알고 있었던 법무부 관계자 2인이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질타 속에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자격의 참가’라는 것을 전제한 뒤 “너무우리만 몰아붙인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의사는 물론 의료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도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가해자들에게만 잘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참석자들의 공방 속에서 이날 토론회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이났습니다. 아마도 민과 관, 피해자 등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자리가 그동안 마련된 적이 한번도 없었던 만큼 모두 할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너무 극명한 입장의 차이로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수용자 인권문제를 놓고 민과 관을 비롯한 관련자 대부분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지역단체와의 간담회 준비돼

감옥의 인권팀이 한국 사회 감옥의 변화와 지역단체와의 좀 더 끈끈한 연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드높은 꿈을 품고(^^) 오는 6월

초 지역에서 감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인권단체들과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고민하고 배우고, 의지를 드높일 수 있는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는 지역단체에서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일을 하긴 해야하겠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전해오에 따라 감옥의 인권팀이 우선 각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고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일하기 위해 함께 해야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써 준비됩니다. 지금은 서로의 고민들도 모르고 지역단체의 처지와 조건들이 다름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활동가들의 얼굴을 익히는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 봄에 뿌리는 “한국 사회 인권단체 감옥 네트워크”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

3. 감옥 자료집 2탄 - 감옥 관련 판례집

지난 1월 감옥의 인권팀은 감옥과 관련된 법령 30여개를 모아 감옥법령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발간 사실이 알려진 후 그 내용의 유용함으로 인해 수용시설 내 수용자는 물론 관련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인기를 모았는데요, 이에 따라 자신감을 얻은 감옥의 인권팀은 상반기 내(8월) 감옥관련 판례집을 도서출판 ‘사람생각’을 통해 출판할 계획입니다. 판례집 준비는 감옥사례모임에 참석하고 계신 한상훈(국민대 법대) 교수와 이승호(건국대 법대) 교수, 이상희(민변) 변호사 등이 도와주실 계획이고요, 90년대 이후 국내 판례를 중심으로 해 일본과 독일, 미국, 유럽인권재판소 등의 판례가 함께 수록됩니다. 판례집 출판 사업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인권영화제

올해 인권영화제의 작품선정이 모두 마무

리되었습니다. 국내 10편과 해외 25편. 올해의 주제는 ‘전쟁과 인권’이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다시 팔레스타인을 말한다’를 마련했습니다. 팔-이간의 유혈사태가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지금, 인권영화제의 시선을 팔레스타인 민중에게서 거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작년 이슈포커스에서 상영되었던 <팔레스타인 땅의 역사><나지 알 알리><정착민들> 더불어 웨스트 뱅크 지역의 5명의 어린이들의 일상을 담은 <뉴스타임>과 예루살렘, 가자, 라말라 등 5개 지역의 팔레스타인 청년감독들이 전하는 <팔레스타인에서 온 5개의 인권소식> 등 두 편을 보태어 상영합니다.

개막작 <아프간 전쟁 Jung: in the land of the Mujaheddins>은 지난 20년 동안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극도로 지쳐있는 아프간 민중들에 대해 말합니다. Jung은 달리 언어로 전쟁이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아프간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자주 쓰입니다. 1999년 탈레반 집권기, 이태리 출신의 외과 의사 지노는 아프간 북부에 응급병원을 설립합니다. 작품은 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환자들을 통해 전쟁과 기아 그리고 폭정에 시달려온 아프간 민중들의 참담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마수드 아프간> 등 8편의 작품을 ‘전쟁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68프랑스 혁명 등 20세기 후반을 뒤흔든 역사적 사건에 대한 대서사시 <붉은 대기>, 남아프리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싸움 <나의 인생>, 성전환자들의 삶의 고통을 잔잔하게 그린 <서던 컴포트> 등 귀중한 인권 영화들을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무료상영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태주시는 정성으로 영화제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후원회비는 1만원, 2만원, 10만원으로 형편이 허락하는 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후원회원

이 되신 분들에게엔 조그마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영화제와 병행하는 인권그림전시회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엽서를 제작했습니다. 1만원 후원회원들에게엔 그림엽서 3종을 드리며 2만원을 후원하신 분들겐 상영작 <9.11>의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10만원 회원들에게엔 예년과 같이 원하시는 비디오 3편을 드립니다.

상영작 해설 브로셔와 초청장을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를 통해 인권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권운동연구소

연구소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5월 1일 사랑방과 같은 건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5층에는 연구원들의 아담한 공부방이 꾸며졌고, 4층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진보인권이론'(월) 세미나는 5월 20일부터 지난 학습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원들의 소논문 발표 형식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종적 민족주의, 여성과 노동권, 이주노동자의 인권, 평화에 대한 권리 등이 발표 주제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표 세미나는 세미나 참가자 이외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일정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관심있는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주의인권론'(수) 세미나에서는 이제 중국을 거쳐 북한의 인권을 보는 시각과 법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공식적 입장,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인권문제들, 북한의 주요 법제도 등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고민해볼 예정입니다.

'국제관계론'(금) 세미나에서는 지역별 정치·경제적 상황과 역사, 국제관계 등을 살

펴보고 있습니다. 중동과 라틴아메리카를 거쳐, 이제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가 세미나 일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에는 김용현 님(사회진보연대, 사회학과 대학원 재학 중)을 모시고 '이슬람의 붕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용현 님은 중동지역의 사회적 특성과 이슬람의 기본 이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동문제에 접근해 들어가야 서구적 보편주의가 가진 편협한 시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동지역의 분쟁과 고난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동학을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중동지역 민중들이 이슬람이라는 정체성에 호소하고 자살테러까지 불사하는 것은 다른 대안들(사회주의 실험, 종속적 국가 발전프로젝트)의 실패와 세계체제로부터의 배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반전평화운동을 넘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국제적 저항운동('반미운동')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현시기 요구되는 중요한 실천적 투쟁이라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으로 인한 끊임없는 희생이 야기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귀기울일 볼 만한 지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김용현 님의 특강 자료를 비롯하여 연구소의 세미나 관련 자료나 진행 상황은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획사업팀

1. 이주노동자 및 민간인학살 관련 연대운동 참여

기획사업팀은 두 가지 연대운동에 새로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역량이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연대의 필요성을 고려해, 이주노동자 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문제에 관한 연대운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니다.

최근 정부의 '이주노동자 자진신고 및 1년 후 출국 방침'을 통해 사회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 사랑방은 △정부의 자진신고방침 철회 △노동3권이 보장되는 이주노동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이주노동자 공대위'에 소속단체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술한 민간인학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아래서 사회단체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랑방도 이 협의회에 참여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2. 공소시효 특례법 입법청원

상반기 내내 기획사업팀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운동'이 국회를 상대로 한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랑방을 포함한 13개 인권사회단체들은 5월 21일 '반인도범죄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으며, 향후 국회에서의 공론화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거리로!

사랑방의 연대운동 가운데 하나인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 및 대체복무제 개선운동'이 5월 한달 간 거리캠페인을 비롯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대체복무법 공청회에 이은 입법청원 등,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4. 발전노조 인권탄압 공동조사 참여

올 봄 노동정국을 강타했던 발전노조의 파업이 끝난 뒤 두달 여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는 각종 보복조치와 억압이 가해졌습니다. '파업참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서약서'의 강요라든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가압류, 사택퇴거강요, 성향별 등급관리 등

파업참여자의 씨를 말리려는 듯 회사의 인권탄압이 극에 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뒤늦게나마 발전노조에 대한 인권탄압 상황을 조사·정리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인권탄압 행위를 중단시키고,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사업팀은 5월 23일부터 약 2주간의 공동조사 활동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 쓴소리 봇물 터진 국가인권위법 1주년 토론회 ■

4월 30일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맞아 사랑방을 포함한 25개 인권단체들은 서울 종로성당에서 '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아껴왔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초기부터 폐쇄적 운영과 관료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주어진 권한마저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등 인권위를 향한 쓴소리들이 기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를 '보약' 삼아 인권의 보루로써 굳건히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 해소 ■

지난해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발족시켰던 '바로세우자! 연대회의'가 5월초 공식 해소되었습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연말 이후 사실상의 활동을 접었으나, 실무적으로 해소작업이 지연되어오다, 4월말 집행위원 모임을 통해 공식 해소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사/랑/방/소/식

(2002년 4월 넷째 주 - 5월 셋째 주)

1. 이사했습니다.

5월 첫 주에 이사했습니다. 인권운동연구소가 삼선교에서 5층 옥탑으로 옮겨왔고, 4층에 자료실과 회의실을 갖추었습니다. 이전에 회의 공간은 10여명이 앉을 수 있었으나, 지금의 회의실은 두 배 이상 커져서 앞으로는 토론회나 기자회견 등이 있을 때 외부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되도록 사랑방 내에서 소화하려 합니다. 또한 포화상태에 달한 자료실의 공간도 넓어져서 책장을 더 갖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공간과 부엌은 3층에 자리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마다 '사랑방이 건물을 접수했다'고 농담을 하십니다. '꿈꾸는 사람들' 회원들이 전기공사와 컴퓨터 정리를 해주시고, 그밖에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정리와 청소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무실도 없이 출발했던 때, 한 명이 일어서면 모두가 일어서서 비켜줘야 했던 좁은 사무실을 전전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환경을 더욱 아끼고 가꾸면서 많은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서준식 선생님 집무실 마련

서준식 선생님이 성균관대 정문 앞에 개인 집무실을 마련하셨습니다. 사랑방 사무실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서 선생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3676-1301 팩스: 3676-1302

이메일: doll@sarangbang.or.kr

또는 doll5363@yahoo.co.kr

주소: 종로구 명륜동2가 128번지 2층

3. 표구상 차린 꿈사

단 존스씨 그림 전시회 준비에 청년후원회 원모임 '꿈꾸는 사람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표구비가 만만치 않아 걱정했는데 꿈사 회원들이 직접 표구를 했습니다. 싼 재료를 사용했지만 엄청난 노동력을 들인 결과, 눈부신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직접 전시회에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테러방지법안 폐기 투쟁

작년 말 통과를 눈앞에 뒀던 테러방지법안이 인권단체들의 반대 투쟁과 국회파행으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단 월드컵을 빙자한 졸속 제정을 막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드컵 이후에도 법안 제정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5. 결혼 축하

꿈꾸는 사람들 회원인 이영태, 전가일 씨가 5월 11일 한 쌍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6. 기획사업팀 식구가 늘었습니다.

직장생활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랑방에서 나름의 역할을 찾아보겠다며 임윤희, 김숙현 씨 두 분이 기획사업팀에 합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대후 사흘만에 사랑방을 찾았다는 박유민씨도 최근 기획사업팀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소시효 자료집 제작을 준비중인 기존 식구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002년 4월 회계 보고

(2002년 4월 17일 - 2002년 5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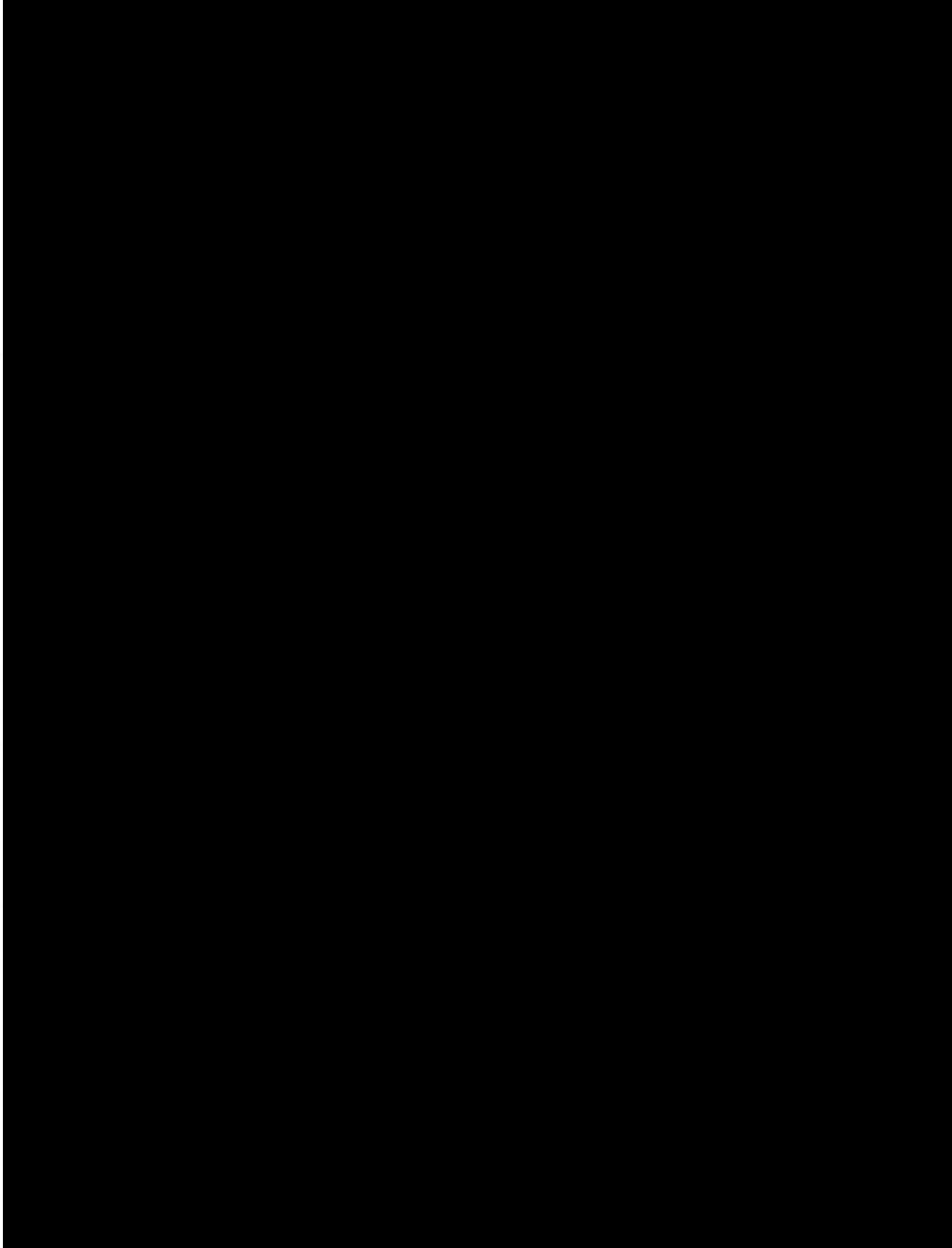
이월금 : 124,221원	
수 입	지 출
■ 사업수익 4,174,330 원 -하루소식 2,874,320원 구독료 1,834,610 오마이뉴스 배급 792,560 대학신문사 기사배급 207,150 한겨레 기고 40,000 -간행물 판매 17,000원 깨어나있어나 1권 인권교육길잡이 1권 -합본호 판매 140,000원 -감옥법령자료집 248,100원 -자료제공 250,910원 -강연료 530,000원 ■ 후원금(정기후원) 4,987,000원 ■ 재정사업 114,000원 <희망>비디오판매 5 개 ■ 은행이자 527원	■ 사업비 836,400원 -하루소식 우편발송 206,930원 -자료실 22,050원 -합본호 발송 6,680원 -감옥인권팀 191,260원 -기획사업팀 123,010원 -사람사랑 제작발송 158,670원 -희망발송비 22,300원 -연대사업비 80,000원 -출장비 25,500원 ■ 활동비 3,500,000원 ■ 사무실유지비 986,630원 ■ 통신비 1,218,110원 ■ 사무비품 449,360원 ■ 사무국 식비 553,290원 ■ 생활비 170,500원 ■ 기타 128,990원
총수입: 9,286,078원	총지출: 7,843,280원
잔액: 1,442,798 원	

특별사업 기금

특별사업을 위해 적립했던 기금을 이번 사무실 이전에 사용했습니다.

특별 사업기금 16,979,940 원	
- 사무실 보증금	10,000,000원
- 컴퓨터 2대 구입	988,000원
- 이사비용	1,206,770원
(전화·랜선 공사 / 에어컨 이동 및 설치비 / 전기공사비 / 내부공사비 / 기타)	
지 출	총 12,204,770 원
특별사업기금 잔월 4,775,170	

<4월 후원금 납부 감사합니다> 거나다 순, 5/15일(지로는 5/13)까지



〈2002년 4월 재정 세부내역〉

- 매달 후원금이 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3개월 동안 적립했던 인권하루소식 오마이뉴스 배급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팀의 외부강연으로 수입이 지난달보다 늘었습니다.
- 사무국식비 지출이 대폭 늘었는데요, 사무실 이사로 3일 동안 점심·저녁을 매식했기 때문입니다.

